

거골 골연골 병변의 Staging을 위한 관절경과 자기공명영상 소견의 비교

A Comparison of Arthroscopic and MRI Findings in Staging of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근배 · 백룡빈 · 이담선

❖ 서론

거골 골연골 병변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병변의 staging에 있어서 관절경 소견을 기준으로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의 진단적 정확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❖ 대상 및 방법

2004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거골 골연골 병변에 대하여 관절경술 및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했던 50명, 5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40명의 환자에서 외상력이 있었으며, 골연골 병변의 위치는 내측이 38예, 외측이 14예였다. Cheng과 Ferkel 분류를 사용하여 관절경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거골 골연골 병변의 단계를 분류하고 두 진단법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.

❖ 결과

술 전 자기공명영상에서 제 1기가 제 7예, 2기가 11예, 제 3기가 25예, 제 4기가 9예였으며, 관절경 소견상에서는 제 1기가 3예, 제 2기가 5예, 제 3기가 35예, 제 4기가 9예였다. 관절경 소견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, 자기공명영상 소견의 진단적 정확도는 81% (42/52)였으며, 제 1기에서 4예, 제 2기에서 6예가 불일치하였다. 불일치된 10예 모두 관절경 소견상에서는 제 3기였으며, 이를 분석한 결과 6예에서 술 전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연골하 부종이 관찰되었다.

❖ 결론

거골 골연골 병변의 staging에 있어서 자기공명영상은 81%의 정확도를 보였다. 하지만, cartilage lesion의 단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, 특히, 연골하 부종 등의 병변이 동반되었을 때에는 더욱 더 진단이 어려웠다.